

경제  
상식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 발간

# 환경부가 추천하는 '에코드라이빙' 으로 기름값 아끼세요!

환경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이번 책자는 10가지 친환경운전 방법별 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량과 절감액을 제시하고 있다. 에코드라이빙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운전습관을 실천해보자.

## □ 친환경운전 방법별 주요 내용

### ○ 하나, 경제속도(60~80km/h) 준수하기

- 경제속도를 준수하면 10%의 연료가 절약되어 연간 27만원의 연료비 절감과 322kg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 발생
- 차속 60km/h시 20.4km/L의 연비를 나타낸 반면 차속 120km/h시 15.1km/L의 연비를 나타내, 과속시 25%의 연비 저하 초래

### ○ 둘,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하지 않기

- 하루 급출발을 10번 하면 100cc의 연료가 낭비되고, 급가속하면 연료소모가 30%이상, 오염물질이 50%이상 증가
- 하루에 10번 처음 5초간 시속 20km까지 천천히 가속하여 출발하면 180원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연간 66천원 절약

### ○ 셋,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루 10분간 줄이면, 1.5km이상 주행할 수 있는 168cc의 연료가 절약되어 하루 300원, 연간 약 53천원 절감

### ○ 넷, 신호 대기시 기어는 중립으로

- 중립모드(N)으로 전환하면 구동모드(D)에서 보다 30%이상 연료소비가 줄고, 하루 5분 동안 중립모드로 전환시 연간 약 16천원 절감
- 중립모드(N)에서 10분간 121cc의 연료가 소모되는 반면 구동모드(D)에서는 34%가 증가한 161cc의 연료가 소모

○ 다섯, 언덕길에서는 관성운전

- 내리막길에서 자동차의 연료 차단기능(Fuel cut)을 활용하여 관성운전하면 약 20%의 연비상승과 오염물질 배출이 감소되어 연간 약 78천원 절감

○ 기타 공회전 제한 등 친환경운전 방법별 연료절감 효과 등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및 친환경운전 포털사이트(eco-driv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금년 3~6월을 친환경운전 집중 캠페인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청사(중앙, 과천, 대전) 및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친환경운전왕 선발대회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운전 효과 총괄표

실천수칙	연간 절감량		사회경제적 비용절감효과 (원/년)
	연료(L)	CO <sub>2</sub> (kg)	
1. 경제속도 준수	152	322	274,099
2. 3급(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하지 않기	36.5	77.38	65,820
3. 불필요한 공회전은 이제 그만!	29.2	61.9	52,656
4. 신호대기시 기어는 중립으로	8.8	18.65	15,869
5. 주행중 에어컨 사용 줄이기	24	50.88	43,279
6. 자동차를 가볍게! 트렁크를 비우기	14.6	30.95	26,328
7. 정보운전 생활화 하기	7.11	15.07	12,821
8. 언덕길에서는 관성운전	43	91.2	77,542
9. 주기적으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는 센스!	28.4	60.2	51,213

※ 2008~2010년식 배기량 2,000cc급 차량, 연간 15,500km주행기준  
 ※ 연료가격 : 1,800원, CO<sub>2</sub>가격 : 20euro/ton(환율 1,550원 적용)  
 ※ 10가지 약속 중 “유사연료, 무 인증 첨가제는 사용하지 말자” 산출 생략  
 - 유사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손실을 비교 산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따름

